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이룩하여나가신 현명한 령도

김 광호

오늘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는 비상히 높아졌으며 부강조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날에 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가 창조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끝없이 기쁘게 하고있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이 오늘처럼 높이 떨쳐지게 된 결정적요인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높이 떨치도록 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나라의 종 합적국력과 지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빨리 발 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더 높이 떨치기 위한 확 고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나라를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도록 하시였다.

지금까지 핵은 렬강들의 독점물이였고 그것으로 하여 핵은 지배와 패권, 강권과 폭제의 수단으로 되여왔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핵위협과 공갈로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독단, 전횡을 일삼으면서 다른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침략과 략탈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오늘날 핵문제는 단순히 과학기술상의 문제이기 전에 나라와 민족의 존 엄과 영예, 자주권 나아가서는 생존권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나라를 강력한 핵억제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세계 에 우뚝 올려세우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민족 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핵무력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보다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고 원자력공업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함으로써 핵물질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시였다.

우리의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주체102(2013)년 2월에는 제3차 지하핵시험을, 주체105(2016)년 1월에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력사에 특기할 수소탄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 은 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나라를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심으로써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도록 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이미전에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안되는 인 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 의 존엄과 지위가 높아지고 민족의 영예가 만리창공에 찬란히 빛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내세 워주신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 높이 떨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으며 그들에게 힘과용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면서 더 높이 비약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101(2012)년 12월에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압력소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공지구위성《광명성-3》호 2호기를, 주체105(2016)년 2월에는 지구관측위성《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함으로써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 강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5(2016)년 9월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지상분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 시키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도록 현명하게 령 도하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뜻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 시려 한평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오늘 우리 조국땅에 펼쳐진 부강번영의 력사는 그대로 수령님들의 혁명령도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한생의 로고가 깃들어있는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로 흥하고 과학기술로 부강번영하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도록 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연구부문에서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며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집행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선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의 과학자, 교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원료와 연료, 자재, 설비와 생산공정, 제 품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생산설비와 공정의 국산화에 앞장에 선 평양어린이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시여 우리 일군들과 과학자, 기 술자, 근로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인민경 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의 경제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으며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자강력의 산물인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희한한 현실이 련이어 펼쳐지게 되였다. 그리고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및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만이 독점하고있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워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농산과 축산, 수산을 결정적으로 추 켜세워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농산,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것은 부강조국을 건설 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농촌데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서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또한 주체103(2014)년 5월 어느 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종자혁명을 다그쳐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의 작물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주체104(2015)년의 봄과 같이 비가 오지 않고 저수지들의 물도 부족한 조건에서 농업과학원에서는 논면적이 비교적 많은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주요시, 군들에 일군들과 연구사들을 파견하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도록 함으로써 알곡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과학축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축산도 과학이라

고 하시면서 농사를 잘하자면 과학농사를 하여야 하는것처럼 축산도 과학축산을 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에 떨쳐나선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들은 수십리에 달하는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현지시험을 거듭하는 과정에 우리 식의 성선자극호르몬처리방식을 연구하였으며 복부내시경에 의한 배자이식방법도 처음으로 연구도입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있는 수산부문에서도 과학수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과학수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소에서 어장탐색과 해상지휘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남포대경수산사업소에서는 주체101(2012)년에 창설된 기업소이지만 과학중시로 해마다 물고기풍년을 안아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시로 달라지는 어황조건에 맞게 현대적인 어군탐지기를 마련하여 지난날의 경험주의에 매달리던 어장탐색을 철저히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운 사업소에서는 련이어 모든 배들에 전지구위치결정체계를 비롯하여 방향탐지기, 항해탐지설비들과 대화통신기재들을 갖추어놓음으로써 어장탐색과 어황예보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농산, 축산, 수산과 함께 다른 부문들에서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7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영웅적로동계급의 혁명적본때와 현대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월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생활의 요구와 문화적수준에 맞는 신발,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과 질제고, 설비관리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 지식경제시대의 본보기공장, 표준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하여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생산과 과학기술이 일체화되고 과학기술로 흥하는 경제는 발전속도가 비상히 빠르고 도 처에서 생산적앙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것이 필연적이다.

지난 시기에도 물론 그러했지만 주체102(2013)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비상이 높아지고 생산적앙양의 불도가니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되였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설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외에도 교육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체육부문 등 여러 부

문들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는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우리 인민은 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온 세상이 보란듯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였다.

과학기술의 위력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에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는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남김없이 떨치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진보적인류에게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존엄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떨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시 는 절세의 위인, 령도의 거장이시다.